

싱가폴 해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재*	학과	경영학과
파견국가	싱가폴	파견대학	PSB 아카데미 시티캠퍼스
파견기간	2016. 1. 6. ~ 1. 28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띠옹바루역에 위치한 학교로 규모가 크지 않고 아담하지만 갖출건 다 갖춘 대학교 캠퍼스 였다. 헬스장, 농구장, 풋살장, 강의실, 엘리베이터 등 기본적인건 다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엔 제약이 있지만 저렴하게 현지 음식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고 강의실도 깨끗하고 활동적인 수업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은 듯싶다. 대학교 느낌보다는 한국의 큰 고등학교의 느낌이다.
수업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강사별로 다루는 과목이 달랐다. 총 4명의 강사가 있었고 니키, 샤밀라, 케이티, 닥터 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셨다. 니키교수님 강의 중에선 linked in과 프레젠테이션스킬, 커뮤니케이션, 싱가포르 직업시장의 수업이 좋았고, 샤밀라 교수님 중에서는 이력서, 커버레터, 이메일, 인터뷰 강의가 좋았다. 케이티 교수님은 학생의 직무검사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폴 교수님의 강의는 단언컨대 한순간도 한눈 팔 수 없이 재밌게, 팀 발표를 통해 진행 되었다. 다문화국가에서 세계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표를 진행하는 순간순간 긴장이 되지 않았나 싶다. 강의를 학교 학생들 10명에서 한강의실에서 지속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풀어진건 사실이지만 수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얻어가는데 많았다.
Activity	수업 외 액티비티로 기업을 방문 하였다. 프린팅 회사인 Janoschka에서는 피피티 발표 및 홍보영상을 보여주었고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하는 일과 무슨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도시개발청에서는 싱가포르의 발전과정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하며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다. 회사 방문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무 비용도 들지 않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기라 그런지 스콜현상으로 인해 소나기가 자주 내렸다. 하지만 1~2시간 내로는 다 그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비가 안내려서 좋았다. 덕분에 시원한 싱가포르 여정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가슴기를 틀어놓은 듯한 현지의 기후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안전	1월 20일 정도에 뉴스 속보로 IS테러 사건이 날뻔했다고 보도 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잡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12시 통금시간을 지키고 담당자분의 싱가포르 규율에 대해 듣는다면 아무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치안이 잘되어 있어 정말로 안전하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규칙은 따로 없었고 총 8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숙소지만 3인 또는 4인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다. 숙소는 새로 리모델링 되어서 깔끔하였고 전반적으로 숙소에서 음식물 관리만 잘해주면 별래가 들어올 일도 없다. 티비 채널이 3개밖에 안나오니 유에스비 지참 필수.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식사는 호커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렴하면서 맛있는 곳은연중에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계 음식은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잘 먹는다면 비싸도 6달러 내외에선 먹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슬림이나 인도 음식이 잘 맞는 것 같다.
교통	통학은 교통을 3주 내내 이용한다면 50달러를 넘게 쓰지만 학교를 오전 오후에 걸어다닌다면 30달러 안쪽으로 마음껏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에 비례해서 요금을 받지만 한국보다 저렴하다. 교통카드가 필수이며 충전은 세븐일레븐, 지하철에서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버스 및 지하철을 잘 이용하면 시내 어디든 갈수 있다. (Singabus버스앱, Singapore 지하철 앱 사용할 것)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707,4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400,000원	종류별로 양껏 먹었다.
기념품	50,000원	카야잼, 초콜릿, 라면 구매
생필품	30,000원	물, 음료수
기타	100,000원	쇼핑
티켓, 유심	80,000원	티켓, 유심비
합계	1,037,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얇은 옷 위주로 5일치 정도의 옷을 준비하면 걱정 없이 입고 세탁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카페에 올라오는 글대로 준비사항을 이수 한다면 따로 걱정할 만큼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었지만 씨티은행처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거나 비자카드를 들고 가면 현금과 함께 섞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여행을 할 계획을 짤 때에는 인터넷도 좋겠지만 Tripadvisor 앱을 사용해서 평점이 좋은 순서대로 한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고 앱에 있는 맛집도 방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Singapore) 앱과 버스 (Singabus) 앱을 미리 받아 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가 없는 시설이 많아서 개인텀블러는 꼭 가방에 챙겨서 가주셨으면 좋겠고 여행용 휴지와 물티슈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제는 가서 사면 더 싸지만 향이 국내만큼 좋지 않으므로 뽑아쓰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20장 내외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라 빨래를 거의 하루에 한번 정도 하는데 옷을 갈아입을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외에 숙소에는 인덕션렌지가 있으므로 조리기구를 가져간다면 알루미늄이 아닌 철 위주로 가져 가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라면은 많이 비싸진 않지만 햇반이 비싸므로 가져가실땐 6개짜리 1팩정도 챙겨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번 싱가포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3일 정도가 자기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외에 여러 활동중에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작성, 커버레터 및 인터뷰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차후에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 좋았고 이외에 수업도 의사소통, 프레젠테이션, 시장상황등 기본 정보를 알아보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섞인 기업방문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지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번외로 갔었던 QExpress 물류 회사가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무는 어떤 곳인지, 싱가포르 취업은 어떤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 이외에 학교 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쪽에서 타과 학생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업무의 결정만이 내려지거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장같은 단지 시설이 아닌 사무적 오피스성격이 두드러 집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도 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인도 취업의 길이 열려 있어서 수업에서 배운 취업 방법을 기반으로 도전한다면 별탈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담당선생님이었던 이수연선생님께서도 자신의 취업 경험담과 면접관이야기, 학생들이 취업하기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선배로써 이야기 해 주신점에서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정보를 배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향후 해외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리나 베이샌즈 앞에서 단체샷</p>	<p>싱가폴 동물원 앞에서 단체샷</p>
	
<p>가든스바이더베이 앞에서 단체샷</p>	<p>싱가폴 판 서스펜션 브릿지 (Macritchie Nature Trail)</p>
 	
<p>칠리크랩 맛있고 싸게 먹는 Momma Kong's 가게에서 멤버들과 함께 단체샷</p>	<p>Maxwell 호커센터(Hainanse Chicken Rice) 입에서 녹기전에 한 장</p>